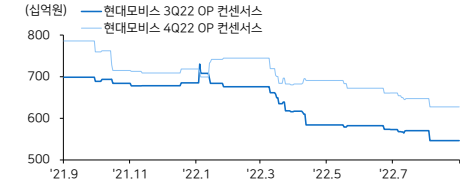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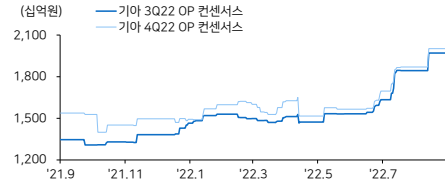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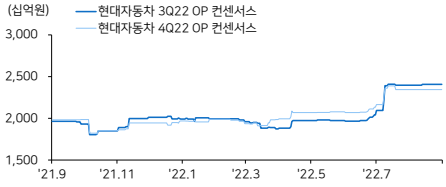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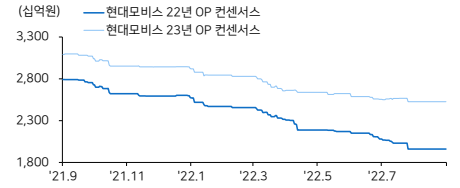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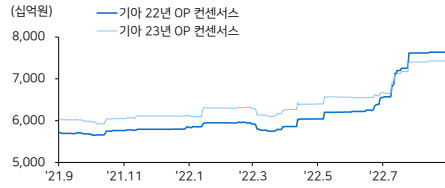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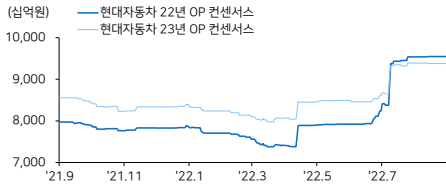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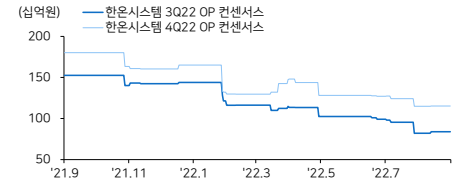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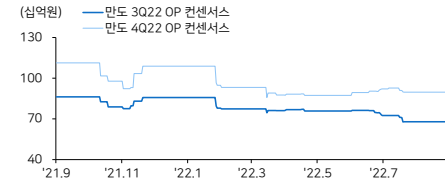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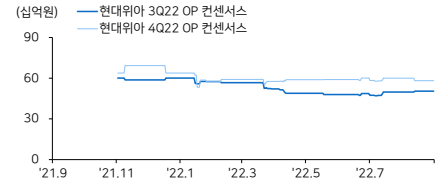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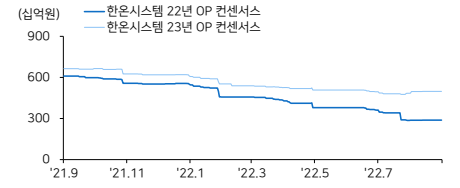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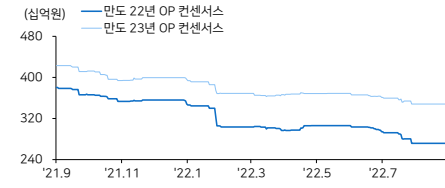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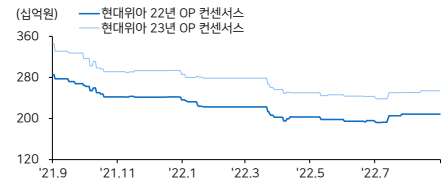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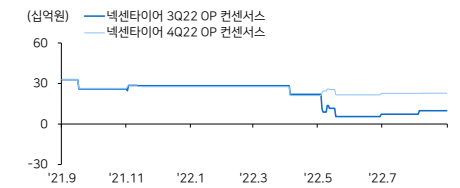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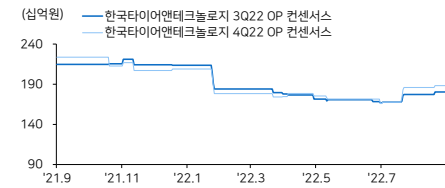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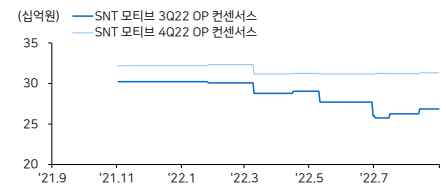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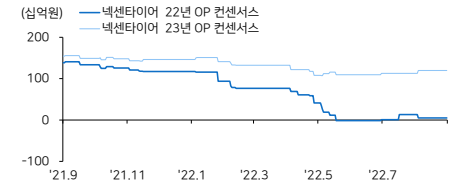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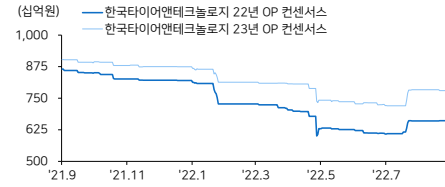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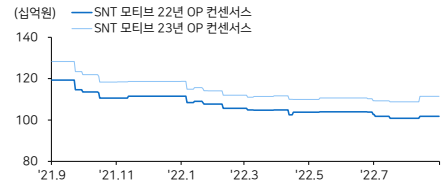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삼성·TSMC, 각자 기술행사 내란히 '테슬라' 초대... 자율주행 무늬 경쟁전 포석 (조선비즈)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TSMC가 최근 기술 포럼을 열고, 자율주행 칩 수주전을 펼침. 앞으로 자동차에서 첨단 반도체 사용 빈도와 양이 늘어나는 만큼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열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https://bit.ly/3fJzBHl>

IRA 우려, 현실로...현대차 전기차 미국 판매 14% 감소 (중앙일보)

현대차는 9월 미국에서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8월 판매량 1,517대보다 -14%(211대) 줄어든 수치. 기아 EV6 역시 지난달 8월보다 -22% 감소한 1,440대를 판매. IRA 법안의 영향으로 BEV 판매 감소가 확인됨.
<https://bit.ly/3EcpSUA>

Elon Musk proposes to buy Twitter for original offer price (Teslarati)

일론 머스크는 SEC를 통해 트위터에게 기존의 계약조건으로 인수 거래를 진행할 의사를 밝힘. 일론 측은 트위터가 소송을 중단하고 기존의 Debt Financing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등의 조건 하에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할 것을 제안.
<https://bit.ly/3CuAZAb>

GM outsells Toyota in U.S. as industry braces for brakes on demand (Reuters)

3분기 GM은 미국에서 yoy +24% 증가한 555,580대를 판매, 반면 토요타는 -7.1% 감소한 526,017대를 판매하면서 올해 GM은 미국에서 Toyota보다 약 8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 그러나 자동차 소매업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우려를 지출.
<https://reut.rs/3RF3eqq>

너무 떨어진 엔화...日 기업들 '원자재·부품 수입 가격 급등, 엔저 효과 퇴색' (파이낸셜뉴스)

과거 엔화 약세는 일본경제의 혼풍이었으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이익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 도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자재와 부품 수입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단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
<https://bit.ly/3Rv861q>

전기차 수요 급증·IRA에美 망간 광산 개발 추진 (아시아경제)

전기차 수요 증가와 IRA 법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의 망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에서 배터리 재료인 망간 광산이 처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임. 배터리산업에서 망간 수요는 2030년까지 9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EhvvZZ>

Tesla announces it's moving away from ultrasonic sensors in favor of 'Tesla Vision' (electrek)

Tesla는 오늘 Autopilot 센서 제품군에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전용 "Tesla Vision"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작년에 전면 레이더를 제거한 것에 이어, 단거리 물체 감지에 사용되던 초음파 센서도 제거한 것.
<https://bit.ly/3C1mSag>

BMW sets new EV delivery record and looks to build momentum with i7 arriving in Q4 (electrek)

북미에서 BMW는 3분기 4,337대의 BEV를 인도. 4분기부터는 i7 EV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EV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판매 증가 지속이 예상됨. BMW는 2023년 급증하는 EV 수요로 인해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https://bit.ly/3C9p1zs>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